Financial Daily

meritz 메리츠증권

2026. 4. 21 (화)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길게 맡길수록 손해"… 예금 이자 공식이 깨진다

디지털타임스 https://zrr.kr/3D5Y0u

5대 시중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최고금리 기준)는 연 2.93%인 반면 24개월과 36개월 만기 평균 금리는 각각 연 2.46%, 연 2.44% 수준
최근 금리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은행은 장기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기 중심으로 금리를 운용하고 고객 역시 만기를 짧게 가져가려는 수요가 맞물린 영향

비대면 거래증가에 AX까지 겹쳐…은행 직원 1년새 1100명 짐 쌌다

서울경제 https://zrr.kr/xn5NJ7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시중은행의 국내 임직원 수는 6만 1156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123명 감소
이는 비대면 거래 증가에 금융권의 AI 도입 가속화에 기인하며, 시장에서는 AI 전환(AX) 속도를 감안하면 은행 점포와 직원 수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금융당국, 중동 피해기업에 '차환 비용' 손질

전자신문 https://zrr.kr/fA4z3Y

금융당국이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라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금융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
오는 5월부터 차환 발행을 진행하는 기업들부터 적용되며,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 진출 또는 교역 기업의 회사채 기반 유동화증권(P-CBO) 차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

홍콩 ELS 과징금, 두 달 넘게 표류…감경 폭·패소 부담에 당국 '장고'

뉴스1 https://zrr.kr/yY5rb1

금융당국의 홍콩 ELS 과징금 제재 결론이 두 달 넘게 표류 중이며, 이달 남은 회의는 한 차례뿐(29일)이나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최종 결론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
금감원은 지난 2월 1.4조원 수준까지 낮춘 과징금 제재안을 금융위에 넘겼으나, 금융위는 추가 감경 폭 산정과 잇단 소송 패소 부담까지 겹치며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

서학개미가 돌아온다 RIA 잔고 17배 급증

헤럴드경제 https://zrr.kr/evRgsi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잔고가 한 달 만에 약 5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17배나 급증
미국 빅테크 중심 투자에서 차익을 실현한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중심으로 자금을 재배치하는 흐름

모험자본 경쟁의 이면, 증권사 건전성 부담 커졌다

비즈워치 https://zrr.kr/Qfezgc

종합금융투자회사인 증권사들이 발행어음과 IMA 사업을 경쟁적으로 확장하면서 기업금융을 통한 성장기회가 늘었지만, 그만큼 건전성 부담 등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
한신평은 만기보유형 기업금융 및 직접투자 확대가 사업포트폴리오와 자산건전성 부담을 높이고, 단기차입 확대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도 구조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고 평가

급전·빚투 수요 늘어나자 보험계약대출 55조 넘어

매일경제 https://zrr.kr/ihjiZw

생명·손해보험사 10곳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55조4597억원으로, 올해 들어 매월 증가세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을 해지할 때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상품으로, 금융당국이 보험계약대출 관리를 위해 이달 들어 보험사들에 리스크 관리를 요청

주사 400번 맞고 8천만원…구멍난 실손보험

매일경제 https://zrr.kr/vJNFa7

비급여 주사제 보험금 지급액은 '21년 2059억원에서 '24년 4311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 1차 의원의 비급여 주사 보험청구액 비중은 '21년 68.8%에서 '25년 77.4%까지 확대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주사제 과잉 처방 및 투여로 연간 최소 수백억 원에서 최대 수천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

CBDC·스테이블코인 공존…'디지털 통화 투트랙' 현실화되나

아시아경제 https://zrr.kr/jIFOBg

디지털 통화 정책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 코인의 공존이 유력해지고 있는 모습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CBDC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병행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

"규제·지갑 다 잡아라"…가상자산 M&A, 라이센스 쟁탈전

매일경제 https://zrr.kr/gp4kQ3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규제 라이선스와 핵심 온체인 인프라를 선점하기 위한 대형 금융사 및 거래소들의 인수합병(M&A) 경쟁이 격화
미국 2위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의 모회사인 페이워드는 미국 최초의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 거래소인 비트노미얼을 최대 5억 5000만달러에 인수하기로 최종 합의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